인천독립 40년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배포일자	2021년 6월 29일(화) 총 4매	
담당부서	자원순환과	담 당 자	• 자원재활용팀장 홍성이 ☎440-3571 • 담당자 양수영 ☎440-3572
사진	☐ 없음 ▣ 있음	참고자료	☐ 없음 ☐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제대로 분리배출하고 ‘현금’ 으로 돌려받자

-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 체결, 인천시 · ㈜에코투게더 · 푸른두레생협-
(자원순환가게)

-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 (지역화폐)으로 보상 -

-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와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 위해 시민들 적극 동참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9일 ㈜에코투게더(대표이사 유승희)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푸른두레생협’, 이사장 배병언)이 참여하는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그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하였다면, 이번 협약을 통해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빠르면 7월부터 동구 행정복지센터 11개소 등 총 22개소에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 고정식(16개소) : 행정복지센터 12개소(동구 11, 남동구 1), 기타 장소 4개소(부평구 1, 계양구 3)
- 이동식(6개소) : 공원 1개소(부평구 1), 이동차량 1대(계양구), 민간상점 4개소(푸른두레생협)

「인천e음가게」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곳이란 의미를 가진 자원순환 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하며,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인천e음가게」로 가져온 재활용품의 유가보상 절차는 우선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한달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 품목별 유가보상 지급단가 ('21.1월 기준*) -

<table>
<tr><th colspan="2">품 목 별</th><th>보상액(원)</th><th colspan="2">품 목 별</th><th>보상액(원)</th><th>비 고</th></tr>
<tr><td rowspan="6">플라스틱류</td><td>PET</td><td>105</td><td rowspan="5">병류</td><td>투명병</td><td>14</td><td rowspan="6">◦ 유가변동에 따라 보상액 조정
◦ 투명페트, 소주병, 맥주병 : 1개당 단가
◦ 그외 품목 : kg당 단가</td></tr>
<tr><td>혼합</td><td>105</td><td>갈색병</td><td>7</td></tr>
<tr><td>PE</td><td>175</td><td>녹색병</td><td>7</td></tr>
<tr><td>PP</td><td>175</td><td>소주병</td><td>100</td></tr>
<tr><td>PS</td><td>175</td><td>맥주병</td><td>130</td></tr>
<tr><td>투명페트</td><td>10</td><td rowspan="2">캔류</td><td>알루미늄</td><td>560</td></tr>
<tr><td rowspan="2">종이류</td><td>서적</td><td>70</td><td rowspan="2">철</td><td rowspan="2">70</td></tr>
<tr><td>일반종이</td><td>49</td></tr>
</table>

※ 품목별 단가는 인천e음가게 시행 시기의 유가변동에 맞추어 확정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의 경우는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는데, 올 하반기에는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과 유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e음가게」를 통해, 주 5회(월~금) 사전에 공지된 장소를 찾아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보상을 실시하고,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는 동 자생단체의 자발적 참여가 눈에 띄는데 자유총연맹 남동구지회 간석1동 분회(회장 김윤길)의 경우,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자원이 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대부분 빌라나 일반주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 회원 16명이 주 3회 투명페트병을 수거하고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의 운영이 현재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한편, 현장 홍보를 통해 가정에서부터 깨끗하게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자발적인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인천e음)로 유가보상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구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당부했다.

<붙임> 참고자료

※ 관련 사진은 행사(14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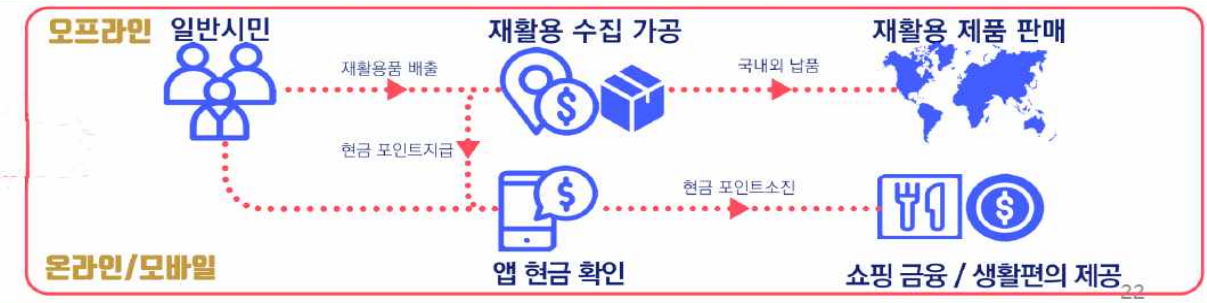
□ 개 요

“인천e음가게”

◦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환경특별시 인천’ 완성을 위한 시민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 사람과 환경, 현재와 미래, 폐기물과 자원을 하나로 이어주는 작은 노력이 시작되는
◦ 제대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인천 e음’(지역화폐)으로 보상해 주는 곳

※ 주민들이 **깨끗하게 분리된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품목별로 무게를 측정 후 **유가보상**을 해주는 가게로 회수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

○ **(사업목적)** 주민주도형 마을쓰레기 감축 및 자원순환체계 구축

○ **(주요내용)** 일반주택가 재활용품 거점배출 → 개인 유가보상

○ **재활용품 처리 체계도**